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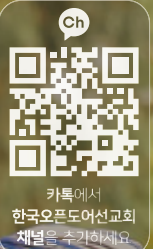
# Open Doors

전 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소식지

VOL.289 | 2026년 9~10월

## 신앙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순교자 유가족들의 이야기



[칼럼] 하나님의 비밀  
이들과 함께 선다는 것  
남겨진 이들을 위한 기도

희망의 시작  
치유의 시작  
나이지리아 보고서

2026 박해와 선교현장 - 에리트레아  
Heart to Heart  
각종 채널 안내  
희망의 선물



Open Doors  
OPENING DOORS TO AFRICA

##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6년 9~10월호 | 통권 289호 |  
등록번호 - 서초, 라11865

대표 :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임시 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조남준 목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임훈희, 김다은, 민태홍,  
유진영, 신예은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658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5,  
2층 202호(방배동)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 후원하기

###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  
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  
신청 및 일시 후원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  
해 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  
발급 됩니다.

###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로 후원하시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하는  
경우, 전화나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일시 후원 계좌>

선교회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 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오픈도어선교회는(Open Doors)?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국제 선교 단체로  
1955년 평신도 사역자 브라더 앤드류에 의해 설립되  
었습니다. 국제본부는 네덜란드에 있으며, 한국오픈도  
어선교회는 오픈도어의 한국 지부입니다.

**사명과 비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박  
해 받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여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경 배달 및 제자 훈련
- 여성과 치유 사역
- 사회 경제 개발
- 난민 지원과 변호
-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



## 목차

- 03 [칼럼] 하나님의 비밀
- 04 이들과 함께 선다는 것
- 08 남겨진 이들을 위한 기도
- 10 희망의 시작
- 12 치유의 시작
- 14 나이지리아 보고서
- 22 2026 박해와 선교현장 - 에리트레아
- 24 Heart to Heart
- 26 각종 채널 안내
- 27 희망의 선물

## COLUMN

# 하나님의 비밀

(시27:1-6)

최홍규 목사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  
가리봉교회 원로 목사)

16세기-18세기까지 있었던 프랑스의 개혁교회 성도  
를 "위그노"라고 부른다.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시작  
된 종교개혁이 점차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프랑스에도  
개혁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핍박과 박해  
가 구, 신교간의 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수많은 희생  
자가 생긴 것같이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  
에 개혁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은 1520년 인문주의자  
들의 교회 갱신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그  
것은 곧바로 구교의 탄압으로 이어졌다. 1523년 8월  
루터주의자 장 발리에르가 허가 잘리고 철삿줄에 묶인  
채로 화형당하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1533년  
11월 존칼빈은 친구 니콜라콤의 파리시장 취임사를 대  
필해 주면서 그 내용에 말씀, 은총, 복음 등과 같은 개  
혁 사상이 담겨있음을 알고 신교의 구교에 대한 선전포  
고로 알아 국왕은 위그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해하  
기 시작하였고, 칼빈은 스위스로 망명하였다. 1534년  
10월 파리 시내에 반성경적인 구교의 모순과 교황권을  
비난하는 벽보가 나붙자, 위그노에 대한 학살이 심해  
졌다. 1536년 칼빈은 "기독교강요" 집필 후 국왕에게  
헌사하며 위그노에 관대한 정책을 호소하여 그의 재임  
동안 박해가 중지되고 위그노의 수가 증가했다. 그리  
하여 1562년에는 프랑스 전역에 위그노가 200만 명  
과 2,000여 교회가 생겨났다. 그러나 1562년 3월 파  
리 근교 바시의 성벽 헛간에서 위그노 300명이 예배하  
는 것을 군대가 기습해 60명의 사망자와 100명의 부  
상자가 나타났다. 일명 바시학살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1572년 8월에는 앙리4세의 결혼식을 구실삼아 축하  
하러온 하객들을 학살한 성바돌로매축일의 대학살사  
건이 일어나 그해 파리에서 3,000명, 전국 3만여 명의  
위그노가 학살되었다. 1589년 앙리4세가 국왕이 되  
면서 신, 구교간의 화해를 이뤄내고 낭트칙령을 선포하



여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후로 87년간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다시 1685년 루이14세가 왕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정한 낭트칙령을 폐지하고 몽텐블  
로 칙령을 내려 그 후로 102년 동안 박해가 다시 진행  
되었다. 이때 위그노는 산속으로 피하였으나 수많은사  
람이 생명과 재산을 잃었고, 100만 명 이상이 프랑스  
에서 탈출하여 유럽, 미국, 브라질,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흩어졌다. 1787년 루이16세가 베르사이유칙령을 내리  
면서 신앙의 자유를 다시 얻게 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정, 교 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가 종교에 관여치  
않게 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나폴레옹의 등장과  
몰락 등 혼란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프랑스  
의 개혁교회가 탄생하기까지 무수한 희생이 있었고 또  
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위그노의 새로운 확산이 이루  
어졌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  
어져 교회를 이루고 선교 역사를 이룬 것과 같다.

시27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도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며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의 통일왕국을 이뤄낸 것을  
볼 수 있다. 기독교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이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  
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평안 중에  
살고 있다. 평안 중에는 어쩌면 기독교는 퇴보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쩌면 박해보다 평안을 더 두려워  
해야 할지 모른다.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  
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의 사명일 것이다. 우리와 저 순교와 박해의 현장에서  
도 지금 그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 이들과 함께 선다는 것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하루 평균 12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도 극심한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폭력이 멈추고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셰(Michée) 목사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떨리는 목소리로 절박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슬픈 현실을 알리는데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최소 4,491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유례없는 폭력적 박해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며,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셰 목사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고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살해된 31명의 기독교인

미셰 목사의 아버지 필리베르(Filibert)는 자신의 마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 된 인물로, 용기 있고 헌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 위치한 필리베르의 교회는 성도가 600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마을 공동체는 이웃들과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풀라니(Fulani) 극단주의 무장 대원들이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0명이 넘는 테러리스트가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미셰 목사는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수갑을 채워 교회로 끌고 간 뒤, 눈을 가리고 총으로 쏘아 살해했습니다. 그날에만 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모두 숲속으로 급히 도망쳤습니다.”

미셰 목사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절망적인 전화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버지가 신으셨던 신발을 보고서야 겨우 아버지인 줄 알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신으셨던  
신발을 보고서야 겨우  
아버지인 줄 알아했습니다.”



##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

“그날의 잔혹함은 참담한 상흔을 남겼습니다. 목숨을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가축과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성도들은 버려진 듯한 절망감을 느꼈고, 이들의 신앙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적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하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미세 목사는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세 목사 자신조차 하나님께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의 신앙마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을지 자꾸 떠올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미세 목사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말을 뱉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슴속에 분노와 쓴 뿌리가 가득했고, 우리 민족을 위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전염됩니다”

이 지역 전역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박해는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부와 고아들만이 남겨졌습니다. 교회가 절망과 슬픔에 매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전염됩니다.” 미세 목사는 말합니다. 그와 같은 이들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왼쪽부터) 순교한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는 데보라(Deborah), 미세, 나탈리(Nathalie).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 ‘어라이즈 아프리카(ARISE AFRICA)’ 캠페인

2023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회 리더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오픈도어선교회는 ‘어라이즈 아프리카(Arise Africa)’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에게 폭력적 박해에 맞서 싸우는 아프리카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5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을 향한 표적 공격이 계속되는 지금, 우리는 미세 목사와 같은 성도들을 향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의 비전은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400만 명의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정신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100만 건의 서명과 기도를 모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잔혹한 기독교 박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후원은 폭력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미세 목사는 오픈도어를 통해 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받았고, 이는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되찾았습니다.”

##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미세 목사는 지역 사회에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훈련을 받았으며, 현재 16명의 사람들을 희망과 치유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미세 목사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미세 목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송고한 뜻을 기리고 싶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 필리베르(Filibert)

찬양 작곡가이자 지혜로운 성도였습니다. 아들인 미세 목사는 “아버지가 찬양할 때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라고 회상합니다.



### 아벨(Abel)

교회에서 드럼을 치던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아내인 데보라는 “남편은 늘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 토마스(Thomas)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아내인 나탈리는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고,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폭력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 후원해 주세요

**4만 원:** 박해받는 크리스천 한 명에게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여 소망과 회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7만 원:** 미세 목사와 같은 리더가 지역 사회에 트라우마 치유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9만 원:** 성도 한 명에게 구호물품, 의약품, 임시 거처는 물론, 소득 창출 프로젝트를 통한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시 후원 (계좌로 입금)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정기 후원

홈페이지([opendoors.or.kr](https://opendoors.or.kr)) - 후원하기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기도해 주세요

미세 목사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을 줍니다.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공

동체와 과부들, 그리고 아이들의 믿음이 살아 숨 쉬도록,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목소리를 내주세요

11월 2일 월요일까지 ‘어라이즈 아프리카(Arise Africa)’ 캠페인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opendoors.or.kr](https://opendoors.or.kr)] 본 청원문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과 취약 계층이 존엄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1. 보호 (Protection):** 무장 세력의 잔혹한 공격으로부터 주민들을 구호할 실질적이고 강력한 보호책을 마련할 것.
- 2. 정의 (Justice):** 공격 가해자들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
- 3. 회복 (Restoration):** 피해를 입은 모든 공동체에 치유와 회복을 지원할 것.

이미 서명에 동참하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겠습니까?

# 남겨진 이들을 위한 기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곳,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은 이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무력한 정부는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신앙을 이유로한 폭력으로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이는 가족들에게 가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절박하고 힘겨운 시기, 우리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움의 손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조시아 목사는 나이지리아의 고향 마을 근처에 있는 집단 매장지에서 목숨을 잃은 가족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눈물은 이제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조시아(Josiah) 목사의 고백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올해에만 3,40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시아 목사의 아내와 세 아들 역시 풀라니(Fulani) 극단 주의자들의 손에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조시아 목사 자신도 납치되어 혹독한 학대를 받다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저는 악마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를 끌어내어 탈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았다고 느꼈고, 그분의 은혜로 저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눈물은 이제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시아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다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놓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든 닿을 수 있으며,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디 기도로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 조시아 목사를 위한 기도

여전히 깊은 슬픔 속에 있지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조시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조시아 목사가 트라우마 치유 사역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조시아 목사와 남은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 포니아구(Pogniagou) 자매를 위한 기도

부르키나파소의 교회 습격 사건으로 남편 하마두를 잃은 포니아구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께서 포니아구 자매와 어린 아들, 딸을 보호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하나님께서 포니아구 자매의 미래를 다시 한번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디아타가(Diataaga) 형제를 위한 기도

부르키나파소에서 기도하던 중 아들 제레마이야를 잃은 디아타가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라고 묻는 디아타가 형제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 제레마이야의 추모가 뜻깊게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디아타가 형제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조시아 목사의 기도에 마음을 모아주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

제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슬픔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소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습격으로 수많은 이들이 아내와 자녀, 형제와 이웃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소서. 우리에게 평안의 샘이 되어 주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소서.

주님, 부디 이 폭력을 멈춰 주시고 치유를 시작해 주소서. 아멘.

# 희망의 시작

반디바(Bandiba) 목사의 교회에  
가해진 잔혹한 공격으로 두 명의  
젊은 리더가 목숨을 잃었고,  
지역 사회 전체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는  
부르키나파소에 희망을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도움 덕분에 반디바 목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제는 박해받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트라우마 치유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반디바 목사의 교회는 보호하심을 구하며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전역에서 학살과 납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인근 마을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의적 자원봉사대를 조직할 때도, 반디바 목사  
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때조차 비  
나데니(Binadéni) 마을의 신실한 성도들은 그곳에 남  
아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거세게 밀려오는 폭력적 박해의 물결  
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 극단주의 세력이 갑자기  
들이닥쳐 평화롭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청  
년, 하마두(Hamadou)와 제레마이아(Jeremiah)를 잔  
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극단주의 무  
리는 반디바 목사의 집을 잣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반디바 목사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온 두 청년의 시신을 목격한 그는 감정  
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반디바 목사는 말  
합니다. “저는 하마두와 제레마이아 곁에 누웠습니다.  
그 순간 내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느껴져 차라리 죽  
기를 바랐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이 공격으로 반디바 목사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2002년부터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성도가 47명에서  
700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이제 공  
동체는 흩어졌고 그의 신앙마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힘겨운 날들 속에서 반디바 목사를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반디바 목사는 트라우  
마 치유를 받을 수 있었고, 회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전에는 용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  
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정리되었고, 나아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치유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으니까요.”

이제 다른 이들이 의심에 빠질 때, 반디바 목사는 지혜  
의 말을 건넵니다. “하마두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  
했고, 온 마을이 그의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제레마이아  
역시 하마두의 발자취를 따라 살았지요.” 그는 덧붙입니  
다. “저는 사람들에게 하마두와 제레마이아가 자신들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으며,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었  
으니 우리가 더욱 굳건히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 “우리는 다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비나데니 마을의 옛 주민 대부분은 그곳을 떠  
났습니다. 반디바 목사와 그의 가족 역시 다른 곳에 새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슴속에는 언젠가  
비나데니로 돌아가 교회를 다시 세우고 사역을 복원하  
겠다는 꿈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는 이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훈련  
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일구어낼 수 있었습니  
다.” 반디바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삶의 의욕  
과 의미를 되찾았고, 이제는 고통받는 다른 이들이 다  
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반디바 목사가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계속  
해서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 하마두와 제레마이아의 유가족들을 주님 손길에 맡  
겨드리며,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 성도들이 언젠가 비나데니로 돌아가 교회  
를 다시 재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 하마두: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 청년  
부 리더이자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 제레마이아: 사랑받는 아들이자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였습니다.



# 치유의 시작

아사베(Asabe) 자매의 가정에 일어난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이 자매는 깊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삶을 이어나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도움 덕분에 아사베는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식량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아사베에게 그날 밤은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참혹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베는 용기를 내어, 2025년 4월 14일 나이지리아 북부의 자기 마을에 풀라니 극단주의 무장 대원들이 침입했던 그날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집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아들 제리(Jerry)를 끌고 갔습니다.” 아사베는 말합니다. “아들 나이는 겨우 열네 살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들을 짐승 잡듯 살해했어요. 그리고는 제임스와 제이콥마저 끌고 갔습니다...”

각각 열 살, 그리고 겨우 두 살밖에 안 된 어린 두 아들은 산 채로 불에 타 숨졌습니다.

아사베는 발각되면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시어머니와 함께 화장실에 숨어 숨죽였습니다. 남편 모세(Moses)는 천장 위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습격범들이 집에 불을 질렀을 때, 남편은 제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사베는 여섯 살 난 딸 조안나(Joanna)와 함께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자매가 젊어야 할 상실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엄마로서 아사베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살릴 수는 없었을까?’ 과부가 된 자매의 삶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양육하던 남편 모세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사베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 평안을 찾아가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는 가장 적절한 때에 아사베에게 다다랐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여러분 덕분에 오픈도어선 교회는 마을에 도착해 150가구의 기독교인 가정에 구호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사베는 말했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아사베는 오픈도어선교회가 주관하는 5일간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습니

다. 자매는 성경에 기반한 전문 상담을 통해 슬픔과 트라우마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아사베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사베는 말합니다. “진심으로, 치유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배운 말씀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아사베는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풀라니족 이웃들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매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과부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용서했다고 생각하 다가도 때로는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아사베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택해 주셨고, 과부 모임 속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매는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과부가 되는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으니 그분이 친히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아사베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그날의 비극이 마치 오늘 일어난 일처럼 다시 떠올라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 조안나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나이지리아에는 저와 같은 과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러한 폭력적 공격이 멈추어 우리가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로(岐路)에 선, 나이지리아

강제 실향된 나이지리아 교회에 미래는 있는가?  
2026년 9월 (오픈도어 나이지리아 보고서 중 일부 발췌)

OPENDOORS.ORG

 OpenDoors

## 요약보고

### 나이지리아, 기로에 서다

본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의 향후 향방을 가름할 서로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와 최근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첫 번째는 폭력 사태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모든 주민, 특히 기독교 공동체의 강제 실향과 고통이 한층 심화하는 비극적 미래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국제 협력에 힘입어 정부의 안보 대응력이 강화됨으로써 불안정을 종식하고 정세 안정과 국내 실향민의 안정적인 귀환을 위한 길을 열어가는 회복의 미래다.

최근 폭력 사태 관련 데이터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우려스러운 현실을 드러낸다. 일정 기간의 상대적 안정기를 거친 후 살해 및 납치 범위가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말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기독교인들이 지속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가운데, 이러한 폭력의 파장은 무슬림 공동체로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민족·종교적 대립, 경제적 갈등,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분쟁의 구조가 한층 다변화·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코하람(Boko Haram)과 더불어 풀라니(Fulani) 무장 세력, 그리고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주(ISWAP)가 자행하는 대규모 폭력의 확산은 광범위한 불안정과 만성적 강제 실향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의 징후도 감지된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 역시 다시금 대응 조치에 나서기 시작했다. 국가 안보 개혁을 추진하고 가해자 체포 및 기소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위기 사태의 절대적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증유의 수준이며, 향후 지속적인 사법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적 면피성 조치에 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인도주의적 실태는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 나이지리아 내에서만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 실향민으로 전락했다. 수많은 이들이 물자와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향민 캠프나, 이미 수용 한계에 다다른 현지 수용 공동체에서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북중부 지역의 경우 반복되는 강제 이주, 무장 단체에 의한 토지 무단 점유, 만성적 불안정 요소로 인해 고향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적 제도 개선, 재정착 프로그램, 지역 차원의 귀환 사업 등 희망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실행 규모가 영세하고 재정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나이지리아 북부 교회의 가시적·영적 기반 역시 이러한 지각변동 속에서 크게 재편되고 있다.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해체되어 터전을 잃었고, 예배당 건물은 파괴되거나 방치되었으며, 성도들은 도심 지역으로 흩어져 이주하고 있다.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교회가 특유의 신앙적 회복력과 소망을 지켜내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변동, 재정적 압박의 심화, 농촌 지역 기독교 공동체 기반의 해체라는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나이지리아의 미래는 이제 핵심 주체들이 내리는 정책적 결단과 행동에 달려 있다. 현재의 폭력과 사법적 무책임이 방치된다면 주민들의 강제 실향은 가속화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는 더욱 아득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가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정 의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과 다각적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안보 확보와 정의 구현, 그리고 실질적인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갈 희망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 서론

2024년,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 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국제종교자유연구소(IIR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가 공동 발간한 『집으로 가는 길은 없다(No Road Home)』 보고서는 나이지리아 기독교 국내 실향민(IDP)들의 참담한 생존 기록을 담아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을 휩쓴 극단주의 무장 단체의 폭력 사태로 인해 기독교 공동체를 비롯한 수많은 주민이 대규모 강제 실향으로 내몰렸음을 고발했다. 특히 기독교인을 집중 표적으로 삼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북부 보르노주(Borno State)와, 풀라니(Fulani)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린 플레토주(Plateau State)의 피해 상황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해당 보고서는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되어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기독교 실향민들이 겪는 특유의 고난과 신앙적 시련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장의 한 국내 실향민(IDP)은 다음과 같이 절박한 호소를 전했다.

“전 세계 교회는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 교회는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극단주의 무장 세력에 의해 희생된 주민 22명의 집단 매장지

2년이 지난 지금,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처한 엄중한 현실은 국제사회의 더욱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폭력 사태의 구조적 원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가 나이지리아 내 강제 실향 피해를 입은 교회 공동체의 미래에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기독교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삶의 터전을 잃고 영원히 고향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폭력

으로 고통받는 북부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지역사회에 진정한 '집으로 돌아갈 길'과 더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목도되는 일련의 혼란과 모순된 징후들은 나이지리아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나이지리아가 어떠한 경로를 밟게 될지는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나이지리아 현지 및 전 세계 교회의 적극적인 행동에 달려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 실향민(IDP)의 규모 변화와 이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 그리고 고향 복귀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나아가 나이지리아 북부 교회의 장기적 전망을 진단하고, 국내 실향민의 안전한 귀환과 지속 가능한 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히 이행되어야 할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폭력의 양상과 원인

### 폭력 사태의 양상

나이지리아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는 수백만 수혜자 및 국민의 삶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의 사회·정치적 지형과 국제사회의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폭력의 실태와 규모를 측정하는 작업, 특히 종교 집단별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방법론적으로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본 보고서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검증된 최상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폭력 관련 수치 및 분석은 아프리카 종교자유감시단(ORFA)<sup>1</sup>의 보고서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1</sup>. 아프리카 종교자유감시단은 현지 자체 네트워크 등 1차 출처 자료와 분쟁지역위치·사건데이터사업(ACLEDD)<sup>2</sup> 등의 2차 출처 자료를 종합하여, 폭력 피해자를 종교적 정체성에 따라 정밀 분류함으로써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받는 영향을 데이터화했다<sup>3</sup>. 단일 시점의 데이터 활용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하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ORFA의 일관된 데이터 수집 방식 덕분에 신뢰성 높은 추세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에 활용된 ORFA의 데이터베이스(Dataset)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6년 3개월에 걸친 집계 기록이다. ORFA는 데이터 수집 및 정리 기준으로 미정부 회계연도(FY: 10월 1일~9월 30일) 단위를 적용하며, 본 요약 보고서는 6년 간의 정식 데이터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ORFA가 집계한 분기별 잠정 수치를 합산하여 작성되었다.



일대일 트라우마 상담을 진행 중인 요시아 목사

국내 실향민(IDP) 통계는 수집 자체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 규모보다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흔하다<sup>30</sup>. 그러나 시계열 데이터로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추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나이지리아의 국내 실향민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7년 약 170만 명 수준이었던 실향민 규모는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300만~400만 명 선까지 급증했으며, 최근 몇 년간은 이 수준을 유지하며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역별로 집계된 귀환자(고향으로 복귀한 전직 국내 실향민) 통계에 따르면, 실향민 수가 가장 많은 북동부<sup>31</sup>에서는 귀환자가 소폭 증가했고, 북서부와 중북부<sup>32</sup>에서도 일부 귀환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귀환 조치는 지난 2년간 전체 국내 실향민 수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대다수 국내 실향민이 여전히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착 방안(연구적인 해결책, Durable Solutions)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장기적인 실향 상태(Protracted Displacement)에 방치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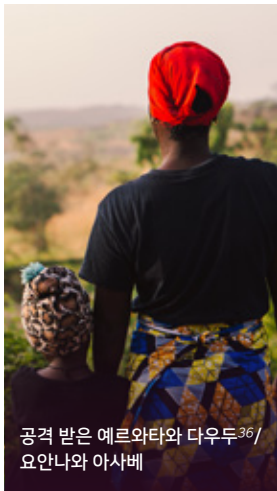
### 국내 실향민 거주 현황

나이지리아의 국내 실향민(IDP)은 공식 캠프, 비공식 정착지, 또는 수용 지역주민(Host Communities) 내에 얹혀 생활하고 있다. 최근 국제이주기구(IOM)가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실시한 인도적 수요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실향민 230만 명 중 캠프에서 생활하는 인원은 100만 명 미만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다수는 수용 지역사회에 흡수되어 거주하거나 타 지역으로 재정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33</sup>. 이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수용 지역사회가 실향민들에게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생활 기반임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 구호 현장에서는 공식 캠프 체류자들에게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나아가 실향민을 받아들인 수용 지역의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현행 인도주의적 구호 방식으로 지속 불가능함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sup>34</sup>.

실향민 다수를 수용 중인 지역사회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해 심각한 자원 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실향민이 대거 유입되면 기존 지역주민들의 필요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이며, 이는 상호 간의 불만과 적대감을 야기하고 심할 경우 실향민이 해당 지역에서 재차 쫓겨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sup>35</sup>. 『집으로 가는 길은 없다(No Road Home)』 보고서에 따르면, 보르노주(Borno State)의 기독교인 국내 실향민들은 종교를 이유로 한 불공정한 대우와 차별을 겪고 있다. 특히 주거권, 인도적 지원 물자 배분, 교육 기회, 고용 분야에서 이 같은 차별 사례가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2026년 6월 어느 늦은 밤, 풀라니(Fulani) 무장 단체가 베누에주 구마(Guma) 지방정부구역(LGA) 내 예르와타(Yelewta) 및 다우두(Daudu) 지역사회를 급습하여 국내 실향민(IDP) 수백 명과 보안요원 5명을 살해했다. 이번 공격은 치안 당국이 공격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첩보를 사전에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공격자들은 모든 저항을 제압한 뒤, 시장 가판대와 임시 거처에 머물던 국내 실향민들을 무차별 공격했다. 여러 가정이 집과 가판대 안에서 산 채로 불에 타 숨졌으며, 어린아이들마저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공격 받은 예르와타와 다우두<sup>36</sup>/요안나와 아사베

동시에 또 다른 풀라니 무장 단체는 다우두 지역사회를 공격하여, 이에 맞서 저항하던 청년들과 보안요원들을 제압했다. 한 목격자는 이번 참사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체흐와르(Tse-Hwar), 이코겐(Ikyogen) 및 인근 여러 마을 주민 전원이 피신했으며, 대다수가 시장 내 창고와 상점에 임시로 머물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의 참상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창고 6곳과 사무실 1곳, 그리고 수많은 상점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 삼촌과 숙모, 두 자녀, 그리고 처가 식구들까지 모두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30 게다가, 신뢰할 수 있는 종교별 국내 실향민(IDP)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31 국제이주기구(IOM), 『나이지리아 북동부 강제 실향 추적 보고서 제50호: 국내 실향민 및 귀환민 현황(2025년 7월)』, 2026년 5월 15일.

32 국제이주기구(IOM), 『나이지리아 북중부 및 북서부 제18차 국내 실향민 현황 보고서(2025년 10월)』, 2026년 5월 15일.

33 국제이주기구(IOM), 『나이지리아 북동부 강제 실향 추적 보고서 제50호: 국내 실향민 및 귀환민 현황(2025년 7월)』, 2026년 5월 15일.

34 Agunyei, S.C. & Phago, K., 『나이지리아 국내 실향민(IDP) 캠프 내 인도적 지원의 지속 불가능성 연구』, 『African Identities』 제23권 제4호, 2024년 11월.

35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2016년 1월~10월 통계 보고서』, 2026년 5월 15일 열람.

36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보고: 예루와타(Yelewta) 공격 용의자 기소 관련 보도는 로이터(Reuters) 기사 참조: 『나이지리아, 2025년 150명의 사망자를 낸 학살 사건 관련 용의자 9명 기소』, 2026년 2월 2일.

## 반복되는 강제 실향과 토지 점유, 지속되는 불안

나이지리아 중북부의 플라토주, 베누에주, 남부 카두나 지역은 수차례에 걸쳐 잔혹한 공격과 대규모 강제 실향을 겪어왔다. 이 지역의 국내 실향민(IDP)은 주로 지인이나 친척의 집에 머물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베누에주를 제외하면 공식 국내 실향민 캠프가 거의 전무하여, 대다수 실향민이 비공식 거주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반복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는 등 더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sup>37</sup>. 해당 지역의 수많은 공동체에서는 주민 전체가 피신해야 했으며<sup>38</sup>, 가해자들이 해당 지역을 점령하는 경우도 발생하여<sup>39</sup> 집이나 농지로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복되는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향민들의 비극적인 상황은 베누에주 사례 연구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이는 국내 실향민의 귀환을 매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결국 대다수 국내 실향민에게는 여전히 안전하고 실질적인 귀향의 길이 열려 있지 않다.

## 인도적 지원의 현주소

국내 실향민 캠프에 제공되는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구호물자는 폭력 피해 생존자와 강제 실향민들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자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지원 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 부족은 기독교인 국내 실향민이 구호물자 및 인도적 지원 배분 과정에서 이미 차별을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sup>40</sup>. 최근 국제이주기구(IOM)가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실시한 인도적 수요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내 실향민 거주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충분한 식량 확보였다<sup>41</sup>. 이에 더해 정부의 연료 보조금 폐지와 나이이라(Naira)화 가치 하락이 맞물리면서 경제적 난제는 한층 가중되고 있다<sup>42</sup>.

공식 및 비공식 국내 실향민 캠프의 기반 시설 부재와 열악한 주거 환경은 실향민들을 각종 착취와 위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게다가 국내 실향민 지원을 위해 배정된 한정된 예산 중 일부가 유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NGO가 전달하는 구호물자 역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sup>43</sup>.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국내 실향민들을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위험한 고향과 농경지로 다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보르노주에서는 주정부의 조기 귀환 압박으로 인해, 자신들을 쫓아낸 무장 세력이 여전히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향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귀를 강요받는 사례마저 보고되고 있다<sup>44</sup>.



여성 의류점

## 국내 실향민(IDP) 보호 및 귀환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강제 실향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했다. 2026년 3월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캄팔라 협약 국내법(Kampala Convention Domestication Act)」에 최종 서명했다<sup>45</sup>. 이 법은 국내 실향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제 실향을 예방하며, 국내 실향민 보호를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누에주(Benue State)에서는 비공식 캠프 및 임시 정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인 마쿠르디(Makurdi)에 대규모 정착 캠프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국내 실향민을 집결시켜 인도적 구호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Durable Solutions)을 모색하고 있다. 플라토주(Plateau State)에서는 정부와 NGO의 협력 사업인 '에덴 이니셔티브(Eden Initiative)'를 통해, 1차적으로 100가구의 국내 실향민을 현대적 주택과 학교, 기초 기반 시설이 갖춰진 지역으로 재정착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sup>46</sup>. 플라토주 정부는 또한 강제 실향을 겪은 공동체의 규모와 위치를 조사·정리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향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귀환을 위해 안보 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토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토지 등록 및 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나아가 플라토주 정부는 토지 강탈 방지법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국내 실향민이 강제 실향 이후 원래의 토지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sup>47</sup>.

이러한 변화는 보다 안전한 미래를 향한 초기 단계이자, 국내 실향민의 지속 가능한 귀환 가능성을 열어주는 진전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이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귀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식 및 비공식 국내 실향민 캠프의 기반 시설 부족과 그에 따른 열악한 주거 환경은 실향민들의 착취 위험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취약성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37 Punch(펀치), 「플래토주의 강제 실향민 2만 1천 명, 친척 및 지인의 집에서 머물러 - 지 역사회 지도자 증언」, 2025년 1월 24일.

38 Foundation for Investigative Journalism(FIJ/탐사보도재단), 「공격 이후: 당국의 대응 실패와 불평등이 폭력을 부추기는 플래토주 지역사회의 실태」, 2026년 5월 20일.

39 THISDAY(디스데이), 「플래토주에서 무장 목동들이 151개 마을을 점거한 충격적인 실태」, 2026년 5월 15일.

40 오픈도어선교회,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제협회(IIRF),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집으로 가는 길은 없다: 나이지리아 내 극단주의 폭력으로 인한 기독교인 강제 실향의 실태」, 2024년 9월.

41 국제이주기구(IOM), 「나이지리아 북동부 강제 실향 추적 보고서 제51호」, 2026년 5월 15일.

42 「집으로 가는 길은 없다」 및 HumAngle, 「재정착한 국내 실향민(IDP), 나이지리아 북동

부에서 새로운 난제에 직면」, 2024년 10월 9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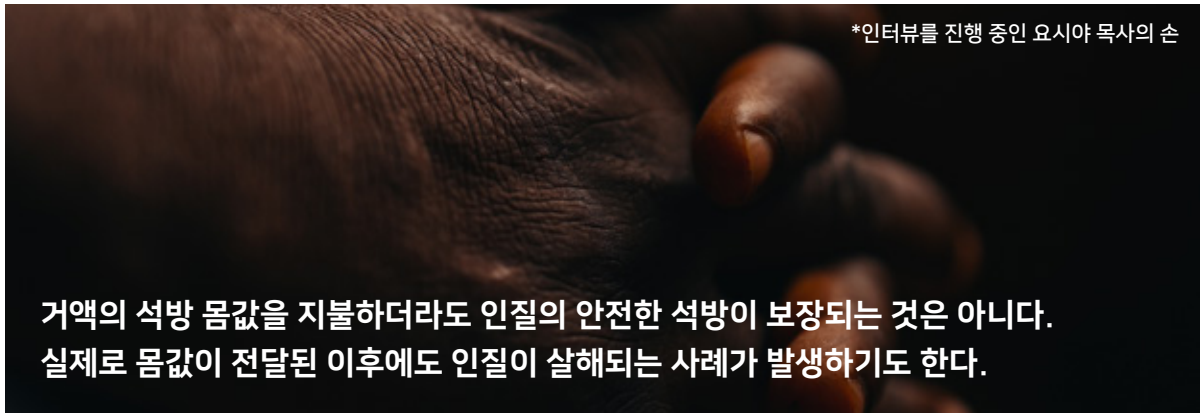
43 B. M. Ajiboye,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바카시(Bakassi) 국내 실향민 캠프 내 인도적 구호 주체로서 현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연구」, 「World Development Perspectives(세계 개발 전망)」 제38권, 2025년 5월.

44 ReliefWeb, 「나이지리아 - 주요 상황 업데이트: 장기화된 분쟁과 경제적 부담으로 북부 지역의 식량 구호 수요 급증」, 2026년 1월 30일.

45 동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아프리카연합 국내 실향민 보호 및 지원 협약(국내법화 및 집행)법 2024」임.

46 플래토주 정부, 「무트팡 주지사, 바사(Bassa) 지방정부구역(LGA)에서 에덴 이니셔티브(Eden Initiative)를 통한 국내 실향민 재정착 사업 착수」, 2025년 12월 18일.

47 Leadership, 「무트팡 주지사, 토지 강탈 방지법 시행 약속」, 2026년 5월 24일 열람.



**거액의 석방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인질의 안전한 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몸값이 전달된 이후에도 인질이 살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 교회의 현재와 미래

### 교회 파괴 및 교인들의 강제 실향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가 기독교 교회 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폭력은 교회 건물에 대한 직접적 파괴는 물론, 예배 및 교회 사역 활동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교회가 입은 피해 규모는 종합적인 피해 집계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인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나이지리아에서 1만 9,100개가 넘는 교회가 파괴되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3개 이상의 교회가 파괴된 셈이다<sup>48</sup>. 이 수치의 엄밀한 검증 여부를 떠나, 나이지리아 북부 교회가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농촌 지역의 피해가 더욱 극심하며, 이에 따른 교인들의 강제 실향이 급증하고 교회의 예배와 사역 활동 역시 현저히 위축되고 있다.

### 교회 지도자 납치 및 재정적 위기

성직자가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납치되는 사건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석방 몸값(Ransom)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값 지불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sup>49</sup>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몸값은 일반 시민에 비해 현저히 높은 편이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이 국내 외 인적·교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범죄 집단의 인식에 기인한다<sup>50</sup>. 그러나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인질의 안전한 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몸값이 전달된 이후에도 인질이 살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몸값 지불은 교회의 재정을 심각하게 고갈시키며, 지도자의 부재는 성도들의 신앙적 위축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러한 여파는 미래 세대인 젊은 층에 더욱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살해된 기독교인 22명의 집단 매장지에 세워진 십자가

48 Catholic World Report(가톨릭 세계 보고서),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박해: 매년 1,200개 교회 파괴 및 수백 명 살해」, 2025년 9월 26일.

49 Al Jazeera(알자지라), 「나이지리아, 몸값 지불 법적 금지 및 납치 범죄에 최고 사형 구형」, 2022년 4월 27일.

50 이러한 양상은 「집으로 가는 길은 없다(No Road Home)」 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음; Voice of America(VOA/미국의 소리), 「나이지리아 교회 지도자, 석방 위해 거액의 몸값 지불되었다고 증언」, 2022년 6월 1일 참조.

# 결론

『집으로 가는 길은 없다(No Road Home)』 보고서가 발표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현 상황이 악화되었다거나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오히려 지금은 향후의 향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매우 불안정하고 결정적인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예견할 수 있는 하나의 미래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하는 시나리오다. 최근 살해 및 납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폭력이 한층 더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면책(Impunity)이 계속되고 국가의 제도적 역량이 미비하며,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면 강제 실향과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나이지리아 국민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 지속적으로 갇히게 되며, 고향으로의 안전한 귀환 가능성 또한 희박해진다. 특히 나이지리아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 교회의 존재감이 계속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 또 다른 미래는 본 보고서에서 확인된 제한적이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나리오다. 최근 이루어진 일부 체포와 기수(기소) 조치는 비록 소규모에 불과하나, 범

죄자가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강화된다면 치안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이 더해진다면, 관련 조치를 뒷받침하고 필요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실향민(IDP)이 안전하게 귀환하고 생계를 회복하며 파괴된 지역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이 단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 사이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이뤄진 조치만으로는 상황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에 미흡하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임은 분명하다.

결국 핵심 요인은 이러한 초기 조치들이 나이지리아 정부에 의해 지속·확대될 수 있는지, 국제사회의 꾸준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지리아 및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회복력과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는 수백만 나이지리아 국민의 생존이 걸린 매우 중대한 문제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국제사회의 공조된 대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더 극심한 불안정과 장기적 강제 실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께 협력한다면,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이들이 더 안전한 미래를 맞이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회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박해는 전례 없는 규모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며, 납치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신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교회를 파괴하려 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이 하나 되어 자신들과 함께 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과 연대하여 백만 건의 기도와 청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겪고 있는 폭력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어라이즈 아프리카 100만 서명 운동]

우리는 국제 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보호:** 무장 세력의 무분별한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

**정의:** 폭력을 자행한 이들을 반드시 기소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

**회복:** 고통받는 피해자들과 공동체를 위로하고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오픈도어는 이 행동 촉구문을

2026년 말에 아프리카연합(the African Union)과 유엔, 기타 국제 기구 및 세계 각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را 전합니다. 앞으로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26년 10월 말까지 100만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7일 기준, 전 세계에서 74만 3,219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청원 신청하기]

opendoors.or.kr의 캠페인 후원 - 아프리카 기도 캠페인에서도 참여 가능.

##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 1. 100만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본 페이지를 자르거나 복사하시어 교회나 모임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홈페이지(opendoors.or.kr) - 캠페인 후원 - 아프리카 기도 캠페인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 신청하기]

### 2. opendoors.or.kr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시고, 정기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의 소식들을 확인해 주세요.



# 기독교 박해지수

##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 에리트레아 (ERITREA)

기독교 박해지수

5 위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 중요한 발견

에리트레아는 기독교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 단체는 네 개뿐이며, 대부분의 복음주의 및 오순절 공동체는 이 범주에서 배제되어 불법으로 취급된다. 국가가 승인한 교회 밖의 기독교인들은 강도 높은 감시, 폭력적인 급습, 그리고 기소 절차 없는 무기한 구금에 직면한다. 이들은 재판도, 의료도, 기본적 권리도 없이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나 지하 감방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슬람이나 에리트레아 정교회에서 개종한 이들은 국가 박해에 더해 가족의 거부와 사회적 배제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사회 전반의 군사화는 이러한 억압을 더욱 심화시킨다. 사실상 강제노동에 가까운 무기한 국가복무에는 양심에 따른 면제가 없으며, 복무 중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청년들이 대규모로 국외로 탈출하면서 전통적인 탈출 경로도 더 위험해졌다. 수단의 분쟁, 리비아의 무법 상태, 에티오피아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지역을 통한 탈출 통로가 사실상 막혔다. 수단 전쟁에서의 에리트레아의 연루 의혹은 난민들의 처지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기독교인들은 참혹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서 박해와 강제 징집을 견디거나, 인신매매와 고문, 각종 위험으로 점철된 경로를 통해 탈출해야 한다.

### 에리트레아 (ERITREA)

#### 국가 정보

지도자 : 이사이아스 아프웨르키 대통령  
 인구 : 3,890,000명  
 기독교인 수 : 1,713,000명<sup>1</sup>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 국가 상황

| 종교 상황    | 신자 수 (명)  | 비율 (%) |
|----------|-----------|--------|
| 기독교      | 1,713,000 | 44.0   |
| 무슬림      | 2,093,000 | 53.8   |
| 무신론/불가지론 | 49,460    | 1.3    |
| 기타       | 35,000    | 0.9    |
|          | 합계        | 100%   |

출처<sup>2</sup>

에리트레아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군사화된 권위주의 체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으며,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이사이아스 아프웨르키 대통령이 중단 없이 통치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인민전선(PFDJ)은 유일한 합법 정당이며, 국가 차원의 선거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1997년 헌법은 비준되었지만 시행된 적은 없다. 정치 생활은 개인숭배, 국가적 순교 서사, 그리고 무기한 국가복무의 제도화에 의해 형성된다.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이 뿌리내려 있다. 독립 언론은 2001년부터 금지되었고, 수천 명의 정치범이 법률 대리인에 접근하지 못한 채 비밀 구금 상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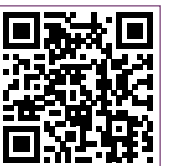
2018년 평화협정 이후 에티오피아와의 관계가 잠시

완화되는 듯했으나, 에리트레아가 티그라이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뒤 그 흐름은 붕괴했다. 2022년 11월 에티오피아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사이에 휴전이 성립했음에도, 에리트레아 군은 2023년 내 티그라이에 주둔했으며 성폭력과 강제 이주를 포함한 잔학행위 혐의를 받았다. 2024년에는 에티오피아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고, 이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추가적인 국내 억압을 부추겼다.

에리트레아의 종교의 자유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종교 단체는 에리트레아 정교회, 수니파 이슬람, 로마 가톨릭교회, 복음주의 루터교회 등 네 개뿐이다. 그 밖의 모든 단체, 곧 오순절교회, 침례교, 재림교, 여호와의 증인 등은 금지되어 있다. 2024년 첫 5개월 동안에만 8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체포되었고, 수감자는 약 35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나 지하 감방과 같은 비인도적 환경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이후 새로운 종교 등록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전체 내용 확인하기

전체 내용은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opendoor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sup>1</sup>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sup>2</sup>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 침대에 누워서도 멈추지 않는 선교의 마음, 김봉수 목사님

지난 2026년 6월 16일 오후 2시, 오픈도어 선교회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 부부와 조남준 사무총장, 그리고 세 명의 간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철원 사랑요양원에 계신 김봉수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김봉수 목사님께서서는 북한 선교를 위해 1억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에 직접 감사드리고자 마련된 방문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목사님께서서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저희를 따뜻하고 평안한 얼굴로 맞아 주셨습니다. 조남준 사무총장은 오픈도어 선교회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감당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을 설명해 드리고, 현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여 드렸습니다. 이어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는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궁극적인 난제들과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한 성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김봉수 목사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하셨지만,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과 선교를 향한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모두가 김봉수 목사님의 건강과 남은 삶,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는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와 교제를 마치고 요양원을 나서는 길에는 김봉수 목사님의 따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따님을 통해 목사님께서 어떻게 오픈도어 선교회를 알게 되셨고, 북한 선교를 위해 후원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김봉수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요양원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는지를 들으며 참석한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요양원을 떠나는 발걸음에는 깊은 은혜가 남았습니다. 몸은 비록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김봉수 목사님의 마음은 여전히 북한의 영혼들과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맡겨진 삶을 더욱 충성스럽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봉수 목사님의 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선교를 향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져, 닫힌 땅 북한에 하나님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 중심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현장 소식



지난 8월, 조남준 사무총장이 중심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뜻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에서는 오픈도어선교회의 현장 영상 20~30여 편을 함께 나누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전 세계 성도들의 생생한 삶과 믿음의 고백을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영상을 통해 현장의 고통과 은혜를 깊이 체감하며 박해받는 교회를 가슴에 품고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전 세계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026 지저스 아미 집회 현장 소식

오픈도어선교회는 지난 8월, 충북 영동 구세군백화수련원에서 열린 '지저스 아미 집회'에 참석해 박해받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집회에서는 250여 명의 어린이 및 교사들과 함께 북한 등 전 세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학부모 모임에서는 선교회 사역을 소개하고 준비해 간 북한 관련 자료를 나누며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향한 기도와 관심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설교, 기도회, 각종 집회 등 초대 문의: 조남준 사무총장(010-8761-0901)

## 각종 채널 안내

저희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박해 뉴스, 간증, 스토리, 기도 제목 등을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TALK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_Open Doors)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매주 1회 카카오톡으로  
박해 뉴스, 현장 스토리 등이 담긴 Weekly를 받으실 수 있  
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는 매일 박해받는 교회의 기도 제  
목이 올라옵니다.



### Instagram (@opendoors\_kr)

### f 페이스북(한국오픈도어)

### 유튜브('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이메일 뉴스레터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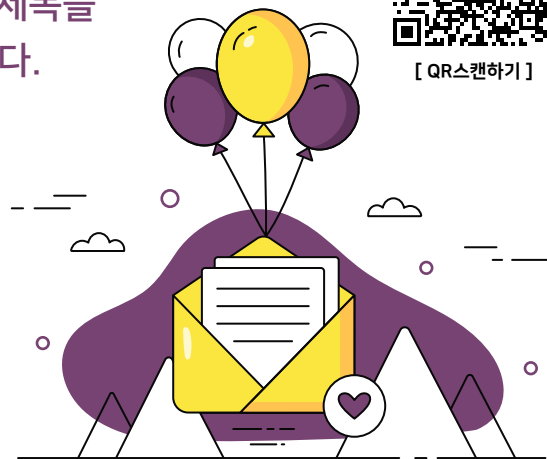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의 소식, 기도제목을  
이메일로 매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QR코드
2. 문자 / 전화 신청 :

성함과 이메일 주소, 이메일 뉴스 신청

이라고 적어서 010-7548-3171번으로  
문자주시거나 전화하여 신청해 주세요.



[ QR스캔하기 ]



## 나의 희망의 선물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 - 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7000원~)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 - SSTs세미나 등 (30,000원~)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30,000원~)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50,000원~)



여성, 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 (50,000원~)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50,000원~)
- 선물9. 박해피해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30,000원~)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60,000원~)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60,000원~)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20,000원~)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 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일시 후원 또는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1. 일시 후원

- 후원 항목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세요 (다중 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휴대폰,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중 하나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2. 정기 후원(매월 자동이체)

아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       |                    |         |
|-------|--------------------|---------|
| 선물번호: | 이름(예금주):           | 주민번호:   |
| 주소:   |                    |         |
| 전화번호: |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         |
| 출금액:  | 출금일 선택: ○ 5일 ○ 25일 | 출금동의서명: |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아버지가 신으셨던  
신발을 보고서야  
겨우 아버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폭력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해 주세요.

미셰(Michée) 목사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 필리베르(Filibert)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이자 찬양 작곡가였던 필리베르 목사는 부르키나파소에서 풀라니 극단주의 무장 대원들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목숨을 잃은 31명의 기독교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잔혹한 박해에 맞서 싸우는 교회와 함께 서주시겠습니까? 미셰 목사와 성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세요.

- 4만 원으로, 미셰 목사와 같은 성도 한 명에게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여 소망과 회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후원 동참 방법 3가지

### 지금 후원하기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정기후원

은행이체: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 CMS 선교회

신용카드: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전화 문의 02-596-3171

‘일어나라 아프리카(Arise Africa)’ 청원 서명 및 공유에 동참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마감일은 11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웹사이트 방문: [opendoors.or.kr](http://opendoors.or.kr)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